



해외양계뉴스



태국

세계에서 가장 큰 계란 오믈렛 요리

태국은 국민들의 계란소비를 증가시킨다는 취지아래 세계에서 가장 큰 계란 오믈렛 요리를 만드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방콕에서 동쪽으로 2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카콩사이오 지역에서 선보인 이 요리는 적십자사의 후원을 받아 1,100명의 주부가 무려 29,999개의 계란을 사용하여 만들어졌는데 이 오믈렛 요리는 기네스북에 오를만큼 세계에서 가장 큰 오믈렛 요리로 평가를 받았다.

이 오믈렛을 만들기 위해 그 지역 기술대학팀이 제작한 후라이 팬만해도 54m<sup>2</sup>(6×9m)넓이로 제작되었으며, 군인들은 145kg의 석탄을 이용해 후라이팬을 가열시키는 작업에 동참하였다. 계란 이외에 들어간 재료를 보면 식용유 260갤론, 레몬주스 2갤론, 물고기 소스 9갤론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PI)

일본

자급을 닭고기 68%, 계란 96%

일본농림수산성이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일본의 전체 식량 자급율이 '95년과 비슷한 42%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닭고기 68%, 계란 96%로 나타났고 그외 돼지고기 57%, 쇠고기 39%, 우유 및 유제품 72%, 쌀 102%, 과일 47%, 생선류 69%, 채소류 86%, 콩류 7%로 나타나 양계산물의 비중이 대체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량을 살펴보면 계란이 17.6kg, 닭고기 11.0kg으로 나타났는데 육류의 경우 광우병과 O-157파동으로 쇠고기의 소비량이 감소한 추세를 보인 반면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의 소비감소에 따라 결과적으로 육류 전체의 소비량은 '95년도에 비해 1.6%(1인당 0.5kg)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유 및 유제품은 건강지향적인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하였다.(鶏鳴新聞)

## 미국

### 육계 생산자, 계열주체 육계사업 전망 상반

미국의 닭고기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계열업체와 계약사육농가협의회(NCPGA) 사이에 판이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육계산업의 27%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타이슨사의 경우 앞으로 미국의 닭고기 소비량이 2005년에는 현재보다 30% 늘어난 42.2kg을 기록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미국 닭고기 산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으나 미국의 28,000농가로 구성된 계약사육농가협의회(NCPGA)는 이러한 소비증가로 인해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농가의 수입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중 하나로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들고 있는데 사육비 등 계사시설 투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바꾸지 않을 경우 계열업체만 살찌우는 격이 되고 있어 각 주별로 정부와 연계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WP)

## 터키

### YUTAV'98, 3월 27~30일 이스탄불에서 개최

터키에서는 오는 3월 27~30일 국제 양계박람회(YUTAV '98)를 수도인 이스탄불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대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124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31개국에서 6,583명이 참관하였는데 11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보다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박람회가 열리는 터키의 양계산물 생산량은 닭고기가 60만톤, 계란이 90억개로 국가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닭고기와 계란이 영양측면에서 국민건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육농가수는 전체 9,987농가 중 육계가 6,787농가, 채란이 3,202농가로 최근 10여년 동안 급성장을 해오고 있으며 산업구조 측면에서 보면 육계의 80%와 채란계의 70%가 현대화된 농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육계의 80~90%가 계열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DJ)

## 캐나다

### 칠면조 소비감소에 따른 자구책 마련

최근 몇년동안 캐나다의 칠면조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칠면조 사육자 및 가공업자들이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칠면조 고기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는 물론 가족들이 모이는 저녁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품으로 각광을 받아오고 있는데 캐나다의 경우 지난 20년전에 국민 1인당 4.5kg의 칠면조고기를 소비하던 것이 최근에는 이에도 못미치는 4.2kg으로 격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미국은 20년전보다 2배가 증가한 8kg의 칠면조 고기를 소비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의 칠면조 가공업자들은 올해 초부터 특별한 브랜드를 선보이며 각종 방송매체를 통해 광고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거 '74년에는 거의 90%의 칠면조고기가 냉장이나 냉동으로 시장 유통이 되고 가공품이 겨우 2%에 그칠 정도로 미미하였으나 지난 '96년에는 가공산업 비율이 20%까지 증가되어 광고 등을 통해 상품이 부각될 경우 칠면조고기의 소비는 늘어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입장이라 밝혔다.(WP)